

# 美國經濟의 最近動向과 展望

車 東 世\*

目 次
I. 序
II. 美國經濟의 現況과 問題點
III. 美國經濟의 陰路에 對한 要因分析
IV. 美國經濟의 長·短期 展望
V. 韓美經濟關係의 發展方向
參考文獻

## I. 序

資本主義經濟體制의 母艦인 美國經濟가 70年代 이후 심각한 出力不調 現象을 보이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70年代에 2차례의 石油波動이라는 심각한 풍랑을 맞아 經濟成長率은 최저 -2.5%(82年)까지 떨어지고 物價上昇率과 失業率은 각각 13.5%(80年)와 9.7%(82年)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美國經濟는 84년부터 다시 成長勢가 회복되고 物價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失業率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美國經濟가 결코 정상 條件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금년 중에 각각 1,400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는 貿易收支赤字의 엄청난 規模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쌍둥이 赤字의 가위눌림 속에서 美國은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향수와 앞날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자신의 질병에 대한 精確하고 냉철한 原因 분석과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現在로서는 달러貨價値를 1年 사이에 30%나 떨어뜨리는 대단히 급격한 平價切下의 단행과 동시에 稅出削減을 위한 稅法改定이 美國

\* 産業研究院.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第2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1986. 8. 18 ~ 19) 全體會議에서 發表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採擇한 構造調整政策의 전부이다. 앞으로 달러貨 平價切下가 과연 美國産業의 競爭力을 강화시켜 貿易赤字를 해소시킬 수 있고 稅法改定이 財政赤字問題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保護貿易主義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에도 수년동안 꾸준히 對美輸出을 증대시켜 왔으며, 금년에는 對美貿易黒字만도 60億달러 이상에 이를 展望이다. 이러한 對美貿易黒字는 우리나라의 國際收支改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韓·美貿易摩擦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0년까지는 기필코 先進國隊列에 들어서기 위해 온갖 努力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對美經濟關係를 어떻게 發展시켜 나갈 것이냐가 하나의 커다란 課題로 등장하고 있으며 世界 最先進國인 美國이 어떻게 하여 오늘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將來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美國經濟의 現狀을 살펴보고 美國經濟의 位置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간단히 分析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美國經濟의 長·短期 展望을 통하여 美國의 앞날을 내다보고,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美國經濟의 變化에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II. 美國經濟의 現況과 問題點

### 1. 世界經濟 속에서의 相對的 地位 低下

1985년 현재 美國의 GNP는 약 4兆달러로서 세계전체 총생산의 2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세계 제 1위이며, 제 2위인 日本의 3.5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國富로 보면 어떠한 나라도 美國과는 상대가 될 수 없다.

2次大戰 이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패허로부터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했지만, 美國은 계속 富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國家經濟의 절대적 規模 면에서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美國을 앞지를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2次大戰 종료 이후 美國經濟의 상대적 地位는 시서히 줄어들어 왔다. 1950년에 美國은 세계 전체 총생산의 34%를 생산했지만 1970년에는 27%로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겨우 20%線에 머물고 있다.

輸出에서도 마찬가지로 美國의 比重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50년에는 美國이 세계 총수출의 18%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12%로 줄어들었다. 이제 世界 各國은 미국

물건에 그만큼 적게 의존하고 있다 하겠다. 예컨대, 美國은 1950년에는 世界 自動車生産의 76%를 차지하여 그야말로 자동차 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26%를 생산하고 있어 세계 第1位の 자리를 日本에 넘겨 주었다. 이밖에도 美國의 상대적 지위 저하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金 및 外換保有高에 있어서도 1950년에는 世界全體의 50%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9%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60년대까지는 거의 無競争 상태에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누려온 美國은 이제 2次大戰 이후 美國의 無償援助와 軍事的 雨傘 아래서 거의 공짜로 경제적 번영을 거듭해 온 日本, 西獨 등 先進友邦國들과,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韓國, 臺灣, 브라질 등 이른바 新興工業國들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 것이다."

〈表Ⅱ - 1〉 世界經濟에서의 美國의 比重變化

(%)

		1950	1960	1970	1980	1985 <sup>1)</sup>
G N P	美 國	34.2	—	26.5	—	22.2
	日 本	2.8	—	7.3	—	7.9
	西 獨	5.2	—	6.9	—	4.4
輸 出 額	美 國	17.5	17.4	15.1	11.8	12.0
	日 本	1.4	3.4	6.7	7.0	10.0
	西 獨	3.4	9.7	11.9	10.3	10.3
金 · 外換保有高	美 國	50.1	32.3	15.5	6.1	8.8
	日 本	2.2	3.2	5.2	5.7	5.8
	西 獨	1.9	11.7	14.6	11.7	10.0
自動車生産量	美 國	75.7	47.9	28.1	20.8	26.2
	日 本	0.3	2.9	18.0	28.7	27.3
	西 獨	2.9	12.5	13.1	10.1	9.6

資料 : World Book, The World Bank Atlas, 各號.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85.

Automotive News, 1986 Market Data Book, Apr. 1986.

註 : 1) GNP는 1983년, 自動車生産量은 1984년 數值임.

1) 美國經濟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즉 美國經濟는 아직도 先進資本主義國家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력을 보이고 있으며 生産性도 日本을 제외한 여타국에 비해서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Jan. 1985, pp.14~15. 및 Robert Z. Lawrence, Can America Compet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pp. 1~14 참조.

## 2. 貿易赤字의 擴大와 純債務國으로의 轉落

美國의 貿易收支가 赤字로 반전된 것은 1971년부터이나 赤字幅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와서 이다.

1980년까지만 해도 貿易赤字規模는 255億달러에 불과했으나 85년에는 1,243億 달러로 약 5배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3~84년 기간 중에 貿易赤字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수년간 지속되어온 달러貨 強勢와 同期間中 美國의 成長率이 先進國 平均成長率 3.7%를 크게 상회하는 5% 수준을 기록하는등 好況局面을 나타냄으로써 이에 따른 輸入需要가 急増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美國 貿易赤字擴大의 보다 구조적인 要因은 消費財뿐만 아니라 傳統輸出 商品인 資本財, 食品, 工業用 化學製品 등에 있어서도 美國의 國際競爭力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技術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自動車, 家電製品 등 耐久消費財에 있어서의 美國의 貿易收支는 70년대 중반 이후 그 赤字幅이 확대되기 시작, 85년중 自動車 및 餘他消費財의 貿易赤字規模는 각각 439億달러, 557億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黑字基調를 유지해 오고 있는 資本財 및 食料品の 경우에도 80년대 들어 純輸出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均衡을 유지해 오던 工業用 原材料의 경우에도 85년에는 554億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하였다. 이는 80년 이후 石油輸入代金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鐵鋼 등 餘他工業用 原材料交易에 있어서는 赤字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美國이 전통적으로 比較優位를 유지해 왔던 技術集約商品에 있어서도 80년대에 들어와 비

〈表Ⅱ-2〉美國의 國際收支 推移

單位：億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貿易收支	- 255	- 280	- 365	- 673	- 1,142	- 1,243
貿易外收支	349	418	373	307	188	220
經常收支	18	64	- 80	- 461	- 1,074	- 1,177

資料：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July 1986.

2) 1983~84년 기간 중 美國의 實質輸出伸張率은 0.2%에 그친 반면 實質輸入伸張率은 17.2%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輸出入伸張率 격차는 美國輸出入의 所得彈性值 격차가 큰 데에도 기인한다. 1975년 1/4분기부터 1983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 추계한 美國輸出의 所得彈性值은 1.14인 반면 輸入의 所得彈性值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較優位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表Ⅱ-3〉에서 볼 수 있듯이 17個技術集約商品의 純輸出累計는 70년대 기간 중 黒字가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赤字로 반전되었다. 비록 航空機, 事務用 機器, 原動機, 醫藥品, 光學 및 醫療專門機器 등 高度 技術集約商品에 있어서는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純輸出規模가 꾸준히 확대되고 83년에도 航空機의 경우 약 101億달러, 事務用 機器의 경우 47億달러의 純輸出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美國의 比較優位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自動車, 家電製品, 時計 등의 分野에서는 比較優位를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美國의 貿易赤字가 80년대 들어와 급격히 확대되고 貿易外收支의 黒字規模도 純投資收益이 감소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美國의 經常收支 또한 83년부터 赤字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經常收支赤字의 확대는 급기야 미국을 純債務國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財政赤字의 擴大

貿易赤字와 더불어 美國經濟의 成長制約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財政赤字의 확대이다. 美國의 財政赤字는 70年代初 이후 社會保障制度的 확충 등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와 레이건 行政府가 國防費 增額, 減稅措置 등을 취하면서 부터이다. 1981~85년 기간 중 美國의 歳出規模는 약 10%가 늘어난 반면 歳入은 7.3% 증가에 그쳐 同 期間中 財政赤字는 738億달러에서 2,123億달러로 확대되었다. 이같은 財政赤字規模는 GNP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며, 聯邦政府의 債務殘高는 80년 말의 약 9千億달러 수준에서 85년 말에는 1兆8千億달러로 증대되었다.

歳出項目別로 보면 國防費支出이 1980~85년 기간 중 연평균 13.5%가 증가하여 85會計年度 歳出總額의 26.7%를 점하고 있고, 社會保障 및 年金, 保健, 醫療費支出 등 이른바 社會福祉費支出도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는 財政赤字補填을 위한 政府借入增大로 純利子支出이 1981~85년 기간 중 19.8%가 증가, 總歳出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表Ⅱ-3〉美國의 技術集約商品<sup>1)</sup>의 純輸出<sup>2)</sup> 推移

單位：百萬달러

順位	SITC Revised	品名	1962	1970	1977	1980	1983
1	724	通信機器, 라디오, TV셋	226.4	- 442.2	- 1,624.3	- 2,395.9	- 5,282.1
2	714	事務用機品	242.8	1,042.0	2,055.4	5,233.8	4,660.7
3	734	航 空 機	1,155.3	2,382.2	5,261.5	10,518.6	10,087.9
4	541	醫 藥 品	220.1	331.1	761.1	1,216.9	1,410.0
5	726	醫療用 電氣機器	4.3	19.3	116.7	493.8	378.2
6	711	原動機 및 設備	371.5	622.7	1,372.5	3,453.1	3,108.5
7	514	其他 無機化合物	- 14.4	77.6	257.3	678.9	437.7
8	864	時 計	- 68.8	- 163.3	- 538.1	- 991.9	- 1,000.3
9	513	無機化合物	53.4	- 21.4	- 386.2	182.4	- 158.8
10	862	사진 및 촬영기기	41.8	152.2	521.4	962.2	649.5
11	861	光學機器 및 의료선문기기	213.1	500.5	911.4	3,327.8	2,931.1
12	571	火 藥 類	7.2	- 7.4	43.3	30.5	17.3
13	581	人造플라스틱	289.5	530.0	1,332.0	2,663.0	2,020.2
14	722	發電機 및 電動機	230.1	364.0	1,327.0	1,205.0	190.0
15	725	家庭用 電氣機器	89.3	- 23.9	- 21.9	- 74.5	- 787.9
16	723	送配電機器	35.1	- 53.6	182.6	56.4	19.8
17	732	道路走行車輛	754.4	- 1,930.6	- 5,732.9	- 11,652.2	- 22,225.0
		小 計	3,851.1	3,381.2	5,838.8	14,907.9	- 3,582.8

資料：OECD, *Trade by Commodity*, 各號.

註：1) 技術集約商品의 技術集約度 順位는 單位生産當 研究開發要支出 基準임.

2) 純輸出은 (輸出-輸入)임.

〈表Ⅱ-4〉美國의 累積經營收支와 對外純資産 變化 推移

單位：億달러

	1970	1975	1980	1983	1984	1985
貿易收支累計	1,006	963	1,060	- 1,628	2,770	- 4,012
經常收支累計	588	788	540	627	- 1,011	2,188
對外純資産	585	742	1,060	1,062	282	- 1,000 <sup>1)</sup>

資料：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 1986.

註：1) 推定値

〈表Ⅱ-5〉美國의 財政赤字의 推移<sup>1)</sup>

單位: 億달러

	F Y 80 F	Y 81	F Y 82	F Y 83	F Y 84	F Y 85	1981~85년 평 균 증가율
歲 入	5,171	5,993	6,178	6,006	6,665	7,341	7.3
歲 出	5,909	6,782	7,457	8,083	8,518	9,463	9.9
財 政 赤 字	-738	-789	-1,279	-2,078	-1,853	-2,123	23.5
財 政 赤 字 / G N P (%)	2.8	2.6	4.1	6.3	5.0	5.4	-
政府債務殘高 (期末基準)	9,143	10,093	11,470	13,819	15,767	18,275	14.9

資料: CEA, *Economic Indicators*, Apr. 1986.

註: FY 1985는 1984.10.1~1985.9.30임.

〈表Ⅱ-6〉歲出項目別 構成

單位: 億달러, %

	F Y 80	F Y 85	1980 - 85년 평균증가율
防 衛 費	1,340 (22.7)	2,527 (26.7)	13.5
國 際 關 係 費	127 ( 2.1)	162 ( 1.7)	5.0
保 健 費	232 ( 3.9)	335 ( 3.5)	7.6
醫 療	321 ( 5.4)	658 ( 7.0)	15.4
年 金·失 業 手 當	865 (14.6)	1,282 (13.5)	8.2
社 會 保 障 費	1,185 (20.1)	1,886 (19.9)	9.7
純 利 子 支 給	525 ( 8.9)	1,294 (13.7)	19.8
其 他	1,314 (22.2)	1,318 (13.9)	0.1
	5,909 (100.0)	9,463 (100.0)	9.9

資料: CEA, *Economic Indicators*, Apr. 1986.

### Ⅲ. 美國經濟의 隘路에 대한 要因分析

美國이 資本主義經濟體制의 보루이자 세계 최대강국이 되기까지는 美國國民의 개척자정신, 효율적인 政府 그리고 豊富한 資源등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美國이 競爭力 弱化, 貿易赤字, 財政赤字 등의 隘路要因들로 인하여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相對的 比重이 점차 줄어드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오랜 人類歷史를 볼 때 영원한 최대강국이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스, 이집트, 로마, 英國등의 세계 최대강국들은 歷史와 더불어 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였다. 만약 美國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기를 되찾지 못한다면 英國도 언젠가는 현재의 位置를 다른 國家에 넘겨주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美國이 오늘날과 같은 隘路에 봉착하게 된 몇 가지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 1. 힘의 原理에 의한 經濟運用

美國은 그동안 經濟原理보다는 힘의 原理에 의해 經濟를 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美國은 自由世界의 경찰국가를 自任, 막강한 國防力을 유지해 왔으며, 韓國戰과 越남戰 등에 참전하여 막대한 戰費를 부담하였다. 50년대 초반의 韓國戰 당시에는 3년간 약 150億 달러(당시 年間 GNP의 4% 정도)를 투입하였고, 60~70년대에 걸친 越남전에는 10여년동안 약 1,600億달러(당시 年間 GNP의 10% 정도)를 戰費로 지출하였다. 80년대 들어서도 美國은 財政支出의 25% 정도를 國防費로 소모하였으며, 85년도에는 그 규모가 2,500億달러를 상회하였다. 美國이 이와같이 강력한 國防力을 확보하고 있고 막대한 戰費를 부담해 주는 덕분에 대부분의 自由經濟國家들이 안전하게 經濟活動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經濟的인 의미에서만 볼 때 國防費의 負擔增加는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經濟原理와는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빵과 대포」의 선택문제라 하겠으며, 그만큼이 확대재생산을 위한 國民經濟의 순환과정에서 누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레이건行政府는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미국」을 추구해 왔으나, 經濟的 側面에서 본 美國의 國力은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다. 國防費의 支出增加는 대규모의 財政赤字를 낳고 이는 다시 高金利와 달러貨의 異常強勢을 낳았으며 또 다시 貿易赤字의 擴大를 초래함으로써 美國經濟의 악순환과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人들은 지난 수년동안 달러貨 強勢에 따른 基軸通貨國으로서의 Seigniorage 증가와 高金利로 인해 대폭 증가된 對外



債權 收益을 즐기기에 바빴다. 그러나 불과 3~4년 사이에 美國의 貿易收支는 급격히 악화되고 지난해부터 債權國으로부터 純債務國으로 轉落하는 등 美國의 經濟力 후퇴현상은 최근 몇년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經濟原理를 무시한 채 힘의 原理로 經濟를 運用해 온 결과 美國經濟의 競爭力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 2. 經濟政策 運用과 관련된 不確實性의 增大

經濟政策 運用과 관련된 不確實性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로 通貨量, 金利, 換率 등 實物經濟에 큰 영향을 미치는 金融變數들이 지나치게 급격히 變動함으로써 정상적인 經濟活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變數의 급격한 變動은 通貨政策運用의 일관성 및 적합성 여부와 관련지워 분석해 볼 문제이다. 美國의 通貨當局은 70년대 말 제 2차 石油波動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通貨緊縮을 단행했으나,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당초의 의도대로 인플레이가 진정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高金利의 유발과 이로 인한 투자부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다. 美聯準이 通貨量( $M_1$ )의 增加幅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면서 金利가 급上昇하기 시작, 78년에 10% 수준이었던 프라임레이트가 80년 말에는 21.5%까지 치솟았다. 聯準의 엄격한 通貨緊縮은 美國經濟가 극도의 沈滯期에 빠졌던 82년에 가서야 緩和되었으나, 그때까지 美國의 金利水準은 매우 높았으며 民間의 投資活動은 高金利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美國經濟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沈滯狀態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油價急騰으로 인한 소득누출 이외에도 通貨緊縮의 요인도 매우 컸다. 美國金利는 81년을 고비로 하락세로 反轉하였으며, 通貨量이 급격히 증가한 85년에는 프라임레이트의 수준이 다시 10% 이하로 까지 떨어졌다.

〈表 Ⅲ-1〉 美國의 通貨量 增加率 및 金利變動 推移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通貨量( $M_1$ ) 增加率		7.2	6.6	6.5	8.8	9.8	5.8	12.3
金 <sup>1)</sup> 利	프라임레이트	12.67	15.27	18.87	14.86	10.79	12.04	9.93
	聯邦資金金利	11.19	13.36	16.38	12.26	9.09	10.22	8.10

資料: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Reports, 各號

註: 1) 期間平均金利임.

80년대는金利變動 외에도 달러貨 換率의變動幅이 매우 컸던時期로 기록된다. 달러貨는 80년 하반기이후 85년 초까지 強勢를 지속하여, 同 期間中 달러貨 價値는 實效換率基準으로 40% 가까이 上昇하였다. 이처럼 80년대 전반기에 달러貨 強勢가 지속된 큰 원인은 美國의 상대적인 高金利로 인한 外國資本의 美國內 유입이었다. 83년 이후에는 美國의 經常收支가 급격히 惡化되는 가운데에서도 달러貨가 資本流入에 힘입어 강세를 지속할 수 있었으나, 달러貨 急落 可能性이 內在된 상태에서 換率不安은 점차 高潮되었고, 換率이 貿易收支 不均衡을 시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國際通貨制度 改編論議가 일기도 하였다. 달러貨 價値는 마침내 85년 3월을 고비로 해서 下落勢로 反轉하였으며, 先進主要國들이 달러貨 弱勢 誘導에 同意한 85년 9월 하순부터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피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貨 價値는 최근 18개월 사이에 평균 30~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通貨量,金利, 換率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實物經濟에 그대로 반영되어

〈表 Ⅲ-2〉 主要通貨의 換率推移<sup>1)</sup>

	1980	1984	1985.2월	1985.12월	1986.6월
¥/\$	203.00	251.10	259.00	200.60	163.95
DM/\$	1.9590	3.1480	3.3225	2.4613	2.1986
F·Fr/\$	4.5160	9.5920	10.1820	7.5610	7.0115
\$/£	2.3850	1.1565	1.0820	1.4450	1.5425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註: 1) 期末基準.

美國經濟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美國經濟는 1980~85년 기간중 年平均 2.3%의 成長을 示顯함으로써, 60년대의 3.8%, 70년대의 2.8%에 비해 成長率이 크게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들어서는 美國經濟의 景氣變動週期가 과거보다 짧아지고 그 振幅도 점차 커지는 등 불안정한 成長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81,82년에는 年平均成長率이 -2.5%, 1.9%에 머물러 극심한 沈滯期에 빠졌다가, 83,84년에는 3.5%, 6.5% 成長을 示顯하여 강한 회복세를 보이더니, 85년에는 成長率이 2.7%로 크게 둔화되는 등 景氣의 過熱과 冷却의 週期가 매우 빨라졌다.

80년대 들어 經濟政策의 運用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企業의 投資判斷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실패하였으며, 이것이 이른바 美國經濟의 曇り 景氣 現象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상대적으로 높은 勞動費用

美國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반면 賃金水準은 높은 水準이어서 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높다. 美國의 勞動生産性은 8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sup>3)</sup> 지난 60년대와 70년대 중에는 勞動生産性增加率이 日本이나

〈表 Ⅲ-3〉主要國의 勞動生産性增加率

(%)

期 間	美 國	日 本	西 獨	프 랑 스	英 國	韓 國
1960-83	1.2	5.9	3.4	3.7	2.3	5.3

資料 :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Jan. 1985

西獨, 프랑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60년 이후 현재까지의 增加率이 크게 낮은 水準이다.

반면 美國은 賃金水準이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國家이다. 一例로 美國 自動車産業 勤勞者의 時間當 賃金은 24달러인데 비해, 日本 12달러, 브라질 3달러, 韓國 2달러이다. 美國의 賃金水準이 日本의 2배, 韓國의 12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sup>4)</sup>

이처럼 勞動生産性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賃金水準이 높아 企業의 單位勞動當 코스트는 높아지고 製品의 競爭力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美國企業이 상대적으로 높은 勞動費用으로 인해 競爭力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投資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勤勞者의 자본장비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 미숙련 노동자의 比重이 높아져 勞動의 質이 떨어진데도 큰 원인이 있다. 美國 勤勞者의 資本裝備率<sup>5)</sup>은 56~60년 기간중 연평균 3.5%가 增加했으나 76~80년 기간중에는 0.4%까지 떨어졌고, 16세에서 19세까지의 10대 勤勞者의 全體 勞動力人口에 대한 比重은 1955년 6.3%에서 75년 9.5%까지 높아졌으며, 80년에도 8.8% 水準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sup>6)</sup>

3) 製造業分野 時間當 生産基準으로 본 美國의 勞動生産性增加率은 81년 3.1%, 83년 4.3%, 84년 3.5%로 매년 4% 내외의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4) *The Banker*, May 1986, p. 56.

5) 勤勞者 1人當 자본스톡 基準

6) 그러나 80년 이후資本裝備率과 10대 勤勞者의 比率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81년 資本裝備率增加率은 3.3%로 크게 높아졌고, 10대 勤勞者의 比重은 85년에는 全體勞動力 人口의 6.8%로 낮아졌다.

이밖에, 원만하지 못한 美國의 노사관계와 個人主義의인 의식구조 등도 企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sup>7)</sup>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勞働者와 사용자는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勞働者들도 全體의 利益보다도 個人의 利益을 먼저 생각하여 規則과 規定에 의한 대우를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 4. 經濟의 老衰化 現象 深化

한편, 오늘날과 같이 美國經濟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經濟의 老衰化에 의한 結果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8)</sup>

먼저 지난 70年代 이후 主要産業에서 美國의 競爭力 變化推移를 통해 美國經濟의 老衰化 現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부터 1981년 期間中 主要國의 品目別 競爭力 變化를 分析한 결과<sup>9)</sup>에 따르면, 美國은 이 期間中 航空機, 農業機械, 建設裝備 등의 競爭力은 강화되었으나 通信機器, 一般機械, 自動車, 鐵鋼 등 이른바 전통산업에서의 競爭力은 약화되어 現在 纖維, 鐵鋼, 自動車, 家電製品 등이 世界市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중 通信機器, 電子部品, 事務機器, 自動車 등의 競爭力이 강화되어 現在는 通信機器, 電氣機械, 自動車, 鐵鋼製品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韓國, 臺灣, 홍콩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이 期間中 通信機器, 航空機, 광학기기, 사무기기, 自動車, 鐵鋼, 고무製品, 金屬製品, 家庭用品, 가죽製品 등 많은 製造業品目들이 競爭力이 크게 向上되고 있으며, 특히 通信機器, 家庭用品, 船舶, 고무製品 등에서 現在에도 世界市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은 傳統産業에서의 우위를 日本과 아시아 新興工業國 등에 빼앗기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通信機器 등 일부 標準化된 技術集約商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位置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美國産業의 競爭力 低下 原因은 物質的 豊饒에 익숙해진 美國人들이 環境變化에 對應하여 새롭게 체질을 변모시키는 努力이 부족하며, 오늘의 美國이 있게 한 原動力이 되었던 위험을 무릅쓴 개척자 정신과 창조적 精神이 이제는 결여되고 있

7)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Jan. 1985, p. 31.

8) Charles P. Kindleberger, "The Economic Aging of America", *Challenge*, Jan. - Feb. 1980, pp. 48~49.

9) Bruce R. Scott, "National Strategies: Key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U. 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1985, pp. 83~93.

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議會, 行政府 및 企業과 일반대중들도 美國의 問題를 認識은 하고 있으나 美國社會의 構造가 지나치게 個人主義的이고 分業化 되어 있어 社會的 합의를 통해 解答을 구하거나 이를 실천하려는 努力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技術과 商品을 開發하려는 努力도 뒤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美國의 研究開發投資가 여타 선진국보다 크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要先進國의 GNP에 대한 研究開發投資의 比重을 살펴보면 82년 현재 日本의 研究開發費 比重이 2.5%, 西獨이 2.4%인데 비해 美國은 1.8% 水準이다. 또한, 特許技術 및 實用新案 出願件數의 비중에 있어서도 日本이 世界全體의 43%로 제일 앞서고 있으며 소련이 그 다음으로 14%를 차지하고 있고 美國은 10%로 제 3위에 머물러 있다.

Schumpeter는 經濟의 發展은 企業의 技術革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努力은 특히 大企業들이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 60년대까지만 해도 美國企業의 이와 같은 努力이 美國經濟에 活力을 불어 넣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美國企業들에게서 이와 같은 活力은 찾아보기 힘들다. 外國과의 競爭에 대처하기 위해 競爭力이 떨어지는 國內生産設備를 賃金이 싼 海外로 이전하고는 있으나, 技術革新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이윤을 내려하기 보다는 이윤 감소를 억제하거나, 競爭企業의 이윤억제에 보다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獨占을 강화하거나 政府에 도움을 요청하여 問題를 解決하려 하고 있다.

日本과 西獨의 경우는 美國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次大戰 이후 國內에서의 경쟁격화로 어려움을 겪게된 日本이나 西獨의 企業들은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고 海外로 눈을 돌려 市場을 개척해 왔다. 60年代 이후 自動車, 船舶, 鐵鋼 등 産業分野에서 주요한 技術革新은 주로 西獨과 日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후 이들의 競爭力이 크게 向上된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美國에서 公害防止規定이 강화되어 美國自動車會社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外國企業들이 재빨리 이에 적응하였던 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美國의 貯蓄率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도 老衰化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美國의 國內貯蓄率은 65년 18%에서 84년에는 16%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日本이 30%를 넘고 있고 西獨 등 유럽 主要國들이 20% 내외의 貯蓄率을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 美國의 貯蓄率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貯蓄率이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財源이 점차 縮小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美國經濟

의 後退를 촉진하는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국가의 경우에도 老年期에 접어들게 되면 貯蓄率이 떨어지게 되고 來日보다는 오늘이 훨씬 큰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表Ⅲ-4〉主要國의 國內貯蓄率<sup>1)</sup> 推移

(%)

	65	70	75	80	84
美 國	17.7	15.2	15.0	16.3	15.6
日 本	32.9	40.0	32.6	31.8	30.5 <sup>2)</sup>
西 獨	28.2	29.7	23.5	24.1	21.8
프 랑 스	26.5	26.7	23.9	21.9	18.9 <sup>3)</sup>
英 國 <sup>4)</sup>	18.8	20.2	16.4	18.2	18.2

資料：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號.

註：1) GNP에 대한 國內貯蓄額 比重.

2) 83년 數值.

3) 82년 數值.

4) GDP에 대한 比重.

#### IV. 美國經濟의 長·短期 展望

##### 1. 國際經濟與件 變化와 美國의 政策

먼저 금년부터 80년대 말까지에 이르는 美國經濟의 長·短期展望을 하기에 앞서 이 기간 중의 國際經濟與件 變化와 이에 대응하는 美國政府의 經濟政策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기간 중의 國際經濟는 低金利, 低油價, 低달러貨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초까지도 지속되던 高金利, 高油價, 달러貨 強勢는 최근 低金利, 低油價, 달러貨 弱勢로 반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도 世界經濟가 풀려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世界貿易環境의 惡化와 開發國의 外債問題는 이 기간 중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기간 중의 國際經濟環境變化가 美國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自由世界國家들의 經濟成長에 좋은 與件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先進國과 先進國 혹은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貿易摩擦이 심화되어 國家間의 交易이 크게 위축되거나, 開途國의 外債問題가 國際金融市場을 동요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빠지게 된다면 이 기간 중 世界經濟展望이 그리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와 같은 國際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는 美國의 政策은 對內的으로는 財政赤字를 줄여 나가면서 政府의 機能을 축소하고 각종 規制를 완화하여 産業의 競爭力強化를 촉진하는 한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金融緩和政策도 병행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對外的으로는 國內産業을 보호하고 交易相對國에 대한 市場開放壓力를加重시키는 등의 自國利益優先의 通商政策이 계속되어 나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이 기간 중 世界經濟의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先進國間 및 先進國·開途國間의 政策協調를 주도해 나가면서 金利, 換率의 調整, 貿易摩擦의 緩和, 外債問題의 점진적 해결을 도모해 갈 것도 예상되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순조로운 政策協調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2. 成長·雇傭

美國經濟는 적어도 80년대 말까지는 안정적인 成長局面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예상이다. 美國의 成長潛在力이 아직도 매우 큰 데다 高金利, 달러強勢 등 美國經濟成長의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있고 財政赤字와 貿易赤字 축소를 위한 努力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美國經濟를 낙관하는 근거이다.

금년 상반기 중의 成長率은 2.5% 수준으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이지만 달러貨 하락, 油價下落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금년 하반기부터 적어도 88년까지는 4%에 가까운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는 90년대초 즉, 89년부터 91년 경에는 油價가 소폭이나마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政府의 지속적인 財政赤字 縮小 노력으로 成長率은 3% 내외로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成長局面이 향후 수 년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美國의 雇傭事情도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7%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美國의 失業率은 점차 낮아져서 90년대 초에는 약 5%~6% 정도의 失業率이 예상된다.

〈表Ⅳ-1〉GNP 成長率 展望

(%)

	86	87	88	89	90	91	86~88	89~91
D R I	2.4	2.9	2.9	--	-	-	2.7	
WEFA <sup>1)</sup>	2.9	4.0	2.2	0.1	5.0	3.2	3.0	2.8
美 行 政 府	3.4	4.0	4.0	3.7	3.6	3.5	3.8	3.6

資料：DRI, *Review of the U.S.Economy*, July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6.

OMB,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1987*, 1986.

註：1) GDP成長率.

〈表Ⅳ-2〉失 業 率 展 望

(%)

	86	87	88	89	90	91
D R I	7.1	6.8	6.6	-	-	-
W E F A	6.8	6.3	6.7	8.0	6.5	6.3
美 行 政 府	6.7	6.5	6.3	6.1	5.8	5.6

資料：〈表Ⅳ-1〉과 동일.

그러나 雇傭事情의 改善趨勢는 勤勞者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시킬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여 이들의 保護主義 壓力이 크게 退潮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失業이 相當部分 摩擦力 失業에서 기인하고 있어서 産業構造 調整을 통한 經濟의 體質改善과 함께 雇傭事情은 改善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 3. 物 價

美國의 物價水準은 현재의 안정기조가 80년대 말까지는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현재 달러貨의 하락으로 輸入物價 上昇을 통한 物價上昇壓力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油價下落을 통한 物價下落要因이 크며, 아직도 비교적 높은 失業率이 勤勞者의 賃金引上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消費者物價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3%臺의 物價上昇率은 대체로 80년대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80년대 말에는 成長持續에 따른 需要增大, 聯準의 緊縮緩和政策 등으로 物價上昇率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表Ⅳ-3〉消費者物價上昇率 展望

(%)

	86	87	88	89	90	91
D R I	2.0	3.0	4.1	—	—	—
W E F A	2.8	3.9	4.4	4.9	4.0	4.2
美 行 政 府	3.5	4.1	3.7	3.3	2.8	2.1

資料：〈表Ⅳ-1〉과 동일.

## 4. 金利·換率

현재의 美國 金利下落 추세는 향후 2~3년간 지속된 후 89년 경부터는 安定勢를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8%에서 유지되고 있는 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프라임레이트가 현재보다 1~2% 포인트 낮은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金利下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거 60년대 성장지속 국면이 유지될 당시에 마이너스의 實質金利에 비해 현재의 實質金利水準(약 5%내외)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物價安定勢가 지속되는 한 通貨供給을 늘려 成長을 促進하는 聯準의 政策選擇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聯準이 지속적인 緊縮緩和의 通貨政策을 採擇하지는 않을 지라도 금년 상반기와 같이 景氣가 다소 침체국면에 처할 경우 流動性供給을 크게 늘리거나 政策金利의 引下를 통해 金利下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달러貨 價値는 지난해 말과 금년 초에 나타났던 폭락세는 아닐지라도 80년대 말까지 대체로 弱勢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달러貨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렇다할 貿易收支 改善效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輸出增大와 輸入減少를 통한 貿易收支 改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달러貨價値 下落의 主要因이라 하겠다.

〈表Ⅳ-4〉프라임 레이트<sup>1)</sup> 展望

(%)

	86.7 <sup>2)</sup>	86	87	88
D R I	8.00	8.53	8.55	8.03

資料：DRI, *Review of the U.S.Economy*, July 1986.

註：1) 期間平均金利.

2) 實績値

지금까지의 달러貨 下落이 美國의 貿易收支 改善을 이루기 위해 충분치 않아서 아직 달러貨는 어느 정도 高評價되고 있다는 주장과 주장과 함께, 換率의 調整만으로는 美國 貿易收支赤字의 축소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엄청난 規模로 확대된 美國의 貿易收支赤字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美國으로서는 지난 9월 이후 보여 주었던 外換市場 介入을 통해서라도 달러貨 價値를 끌어내리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5. 貿易・國際收支

美國의 國際收支는 당분간 크게 改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00 億 달러를 넘어서 美國의 貿易收支赤字는 금년에도 1,400億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87년 이후 점차 적자폭이 축소되어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年間 1,000億 달러를 크게 넘는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表Ⅳ-5〉主要通貨換率<sup>1)</sup> 展望

	86. <sup>2)</sup>	87	88~91 平均
¥ / \$	154.15	155.0	141.9
DM / \$	2.0940	1.8690	1.656
F.Fr / \$	6.8005	6.0665	5.924
\$ / £	1.4940	1.6690	1.566
달러貨의 變動率 <sup>3)</sup>	—	- 10.39	- 1.9

資料：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July 1986.

註：1) 期間末 換率.

2) 實績值

3) 年末對比 實効換率 變動率(%).

〈表Ⅳ-6〉貿易收支<sup>1)</sup> 展望

單位：億달러

	85 <sup>2)</sup>	86	87	88
輸入伸張率(物量基準, %)	8.5	6.2	0.5	6.9
貿易收支(D R I)	-1,243	-1,406	-1,209	-1,180

資料：DRI, *Review of the U.S.Economy*, July 1986.

註：1) 國際收支基準.

2) 實績值

87년 이후부터는 달러貨 下落에 따른 貿易收支 改善效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貿易收支赤字의 대폭적인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美國의 비교적 빠른 經濟成長으로 輸入需要가 줄어들기 힘들며 相當部分의 製造業分野와 일부 尖端産業分野에서도 美國産業의 競爭力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美國이 최근 純債務國으로 轉換됨에 따라 이에 대한 利子支給의 增加가 예상되는데 이는 서비스收支를 악화시켜 經營收支赤字의 축소도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V. 韓美經濟關係의 發展方向

美國經濟는 長期的인 관점에서 보면 그 比重이 작아져가고 있고 또한 産業競爭力의 弱化, 貿易收支의 深化, 財政赤字의 累積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問題點을 안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先進國中에서 가장 활발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으며 世界의 景氣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4~5년 동안은 低油價, 低金利 및 低달러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정도의 經濟成長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여전히 世界에서 제일 큰 市場이다. 人口 2億 4,000萬名이 1人當 17,000달러의 年間所得을 벌고 있으며 年間 4,000億달러에 가까운 商品을 外國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다. 日本은 美國市場으로 700億달러 어치의 商品을 輸出하고 있으며, 臺灣도 우리보다 50億달러나 많은 150億달러어치를 팔고 있다. 美國市場의 전체 규모나 日本과 臺灣의 對美輸出實績에 비하여 100億달러 남짓한 우리의 對美輸出은 결코 큰 金額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 輸出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한 美國의 輸入實績만 보아도 우리의 對美市場開拓餘地가 얼마든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自動車輸入만도 670億달러에 가까우며, 타이어 20億달러, 컬러TV 11億달러, 纖維類 200億달러, 냉장고가 3億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品目들의 경우 우리 商品을 조금만 더 개선하고, 市場開拓活動을 보다 강화한다면 앞으로 日本이 美國市場에서 누리고 있는 市場占有率의 상당부분을 우리 몫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對美輸出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韓·美 兩國企業間의 協力增大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美國의 保護主義를 극복하고 또한 市場開拓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兩國間의 긴밀한 産業協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美國企業의 資金, 技術 그리고 販賣戰略과 韓國企業의 높은 생산성, 낮은 賃金, 그리고 잘 訓練된 勤勞者가 결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競爭力이 높은 製品을 生産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日本企業과의 競爭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2차 世界大戰은 40년 전에 끝났지만, 오늘날의 對日經濟戰爭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美國企業들도 韓國企業들도 Global한 시각에서 새로운 生産·販賣 戰略을 樹立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우리체질에 맞는 경제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比較優位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商品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勤勞者, 企業, 政府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능력에 맞는 市場經濟體制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民營化 및 市場機能 強化政策은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企業의 일상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政府의 介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企業의 長期的 發展戰略을 樹立하는데 있어서나 막대한 投資를 필요로 하는 新製品을 개발하는 데는 政府 및 政府傘下의 각종 研究所들이 수집하고 있는 많은 情報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民族史에 있어 가장 위대한 發明品이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文字의 발명과정은 오늘날의 우리 經濟體制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유망상품에 관해서도 좋은 示唆點을 준다 하겠다. 그 당시 우리나라 유일의 Think Tank라 할 수 있는 集賢殿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 研究한 결과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官民合同의 研究體制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문자들이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조금씩 다듬어져 온 진화의 산물인데 비해 한글은 일정기간에 發明된 Software라는 점에서 우리 民族의 Software에 있어서의 卓越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컴퓨터 産業의 發達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有望産業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Software 産業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比較優位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째, 우리 國民의 특성, 가치관, 의식구조에 알맞는 韓國型 産業構造를 찾아야 하겠다. 美國은 大企業, 臺灣은 中小企業, 日本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협조가 經濟建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大企業이 우리 經濟의 發展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先進國의 保護主義를 극복하고, 또한 개성화 되어가는 先進國 消費者의 다양한 소비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 中小企業에 의한 輸出比重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체면, 모양, 위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국민의 의식구조를 고려할 때 中小企業育成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大企業의 長點을 최대한 活用하면서 서서히 中小企業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기업의 競爭力 向上을 도모하는 일

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美國과의 貿易摩擦은 韓·美貿易의 擴大均衡을 大前提로 우리의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對外經濟의 一環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經濟의 開放化 및 自由化는 결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며 經濟的 損益計算을 근거한 選擇問題이다. 國際經濟環境, 우리 經濟의 成熟度 등에 따라 對外開放이 손실을 더 많이 가져다 줄수도 있고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開放論議의 핵심은 國內外經濟現實에 대한 認識에 있다. 世界가 「隣近窮乏化」政策을 쓰고 있고, 우리 經濟가 「幼稚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開放은 利益보다 損害를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世界가 自由貿易原則을 고수하여 모든 나라가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分業化하고 있고, 우리經濟가 世界的인 成長産業에 比較優位를 확보하고 있다면, 開放은 확실히 利益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問題는 世界가 완전히 自由貿易原則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한 貿易戰爭 상태에 있지도 않은 데다 우리 經濟도 部分的으로 成長産業에 比較優位를 확보한 것도 있고 아직 유치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産業도 많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開放論者도 保護論者도 視角에 따라서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本人의 판단으로는 世界經濟에는 아직도 自由貿易原則이 더 존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經濟도 輸出 主導에 의한 成長軌道를 수정할 입장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交易相對國의 要求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經濟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通商戰略이라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더욱 큰 우리의 輸出市場이 될 것이 확실하고 自動車, 鐵鋼 등 많은 傳統産業에서 우리에게 比較優位를 빼앗기고 있는 美國과의 貿易協商에 있어서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最善의 戰略이라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William J. Abernathy, "The New Industrial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Sep.—Oct. 1981.
2. William J. Abernathy 외 2인, *Industrial Renaissance; Producing a Competitive Future for America*, New York, 1983.
3. Robert U. Ayres,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Reviving Industry through Innovation*, Cambridge, 1984.

4. Edward F. Denison, *Accounting for Slower Economic Growth;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5. Amitai Etzioni, *An Immodest Agenda; Rebuilding America before the Twenty First Century*, McGraw Hill, 1983.
6. Robert H. Hayes 외 1인, "Managing Our Way to Economic Decline," *Harvard Business Review*, Jul.—Aug. 1980.
7. Christopher T. Hill (Ed), *Telchnological Innovation for a Dynamic Economy*, Pergamon Press, 1979
8. Charles P. Kindleberger, "The Economic Aging of America," *Challenge*, Jan.—Feb. 1980.
9. Robert Z. Lawrence, *Can America Compet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10. Robert Z. Lawrence, "The Myth of U.S. Deindustrialization," *Challenge*, Nov.—Dec. 1983.
11. Assar Lindbeck, "Can the Rich Countries Adapt?; Needs and Difficulties," *OECD Observer*, Jan. 1981.
12. R.D.Norton, "Industrial Policy and American Renew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24, No.1 Mar. 1986.
13. Mancur Olson, "Why Nations Rise and Fall," *Challenge*, Mar.—Apr. 1984.
14. Gregory Schmid, "Productivity and Reindustrialization; A Dissenting View," *Challenge*, Jan.—Fed. 1981.
15. John E. Schwartz 외 1인, "The Myth of America's Economic Decline," *Harvard Business Review*, Sep.—Oct. 1985.
16. Bruce R. Scott 외 1인(Ed.), *U.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1985.
17. Herbert Stein, "Should Growth Be a Priority of National Policy?," *Challenge*, Mar.—Apr. 1986.
18. 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 1986.
19.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1987*, 1986.
20. U.S.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Jan. 1985.
21.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1984—85*, Feb. 1986.